

해외 ICT 표준화 동향

2015. 6

4th Week

목 차

■ 본문

1. ITU, IoT 관련 SG20 신설
2. ATIS, 5G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계획 실행

■ 기타소식 6 쪽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게시물 보기 : TTA 홈페이지 ▷ 자료마당 ▷ TTA간행물 ▷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1. ITU, IoT 관련 SG20 신설

(ITU standards to integrate Internet of Things in Smart Cities)

보도날짜 2015.06.10

출 처 ITU

사 이 트 http://www.itu.int/net/pressoffice/press_releases/2015/22.aspx#.VX4fx5Uw99B

- ITU는 스마트시티에서 활용 가능한 IoT 기술의 표준화 수요를 위한 ITU-T 연구반*(SG, Study Group)을 신설함
 - * ITU-T 연구반은 ICT 네트워크 및 기기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국제표준(ITU-T 권고)을 개발
- 신설 연구반의 명칭은 "ITU-T SG20: 스마트시티와 사회에서의 IoT 및 애플리케이션 (IoT and its applications, including smart cities and communities)"
- SG20의 역할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및 M2M 통신을 포함하는 IoT 기술의 통합 개발을 위한 국제표준의 제·개정
- SG20은 도시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IoT 기술을 이용한 표준 개발 예정. 주요 연구 주제는 IoT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세트의 상호운용성 등과 같은 IoT 및 메커니즘에 관한 종단 간(end-to-end) 구조의 표준화임
- IoT기술의 발전은 향후 2020년까지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약 500억 개의 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시킬 것으로 기대됨
 - IoT는 유틸리티, 의료(healthcare), 교통 등과 같은 산업 분야의 융합에 기여하고 있음
 - IoT 기술은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프라를 지능형 빌딩, 지능형 교통 시스템, 스마트 에너지, 물 네트워크(water networks) 등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함
- ITU는 이러한 전환 기회를 통해 정부와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
 - 홀린 자오(Houlin Zhao) ITU 사무총장은 스마트 지속가능한 도시(smart sustainable cities)의 건설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효율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, 이번 ITU-T 연구반 신설이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가능하도록 할 것 이라고 언급함

- ITU 전기통신 표준화 이재섭 국장은 IoT 기술이 향후 5년 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, ITU-T는 IoT 표준화에 매우 적극적이고 도시 개발 과제 해결의 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IoT 기술이 필요한 전 세계 여러 도시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함
- 올해 5월, 도시 두바이는 ITU-T의 스마트 지속가능한 도시 포커스 그룹(FG-SSC, Focus Group on Smart Sustainable Cities)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발 핵심성과 지표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선정되었음
- ITU-T 연구반 신설은 6월 2일~5일 제네바에서 열린 ITU 전기통신 표준화 자문그룹(TSAG,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)에서 결정됨
- TSAG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전기통신 표준화 의회 이외에 ITU-T 구조 및 작업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, 이로써 ITU-T가 그 회원의 우선순위 변경 요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2. ATIS, 5G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계획 실행

(ATIS Launches Initiative to Advance 5G Network Evolution)

보도날짜 2015.06.09

출 처 ATIS

사 이 트 <http://campaign.r20.constantcontact.com/render?ca=10e03908-692f-438e-a1d2-b7a4807a9014&c=e3d50fc0-7985-11e4-86e9-d4ae5292c36f&ch=e3da8e00-7985-11e4-86e9-d4ae5292c36f>

- ATIS는 6월 8~9일, 시카고에서 개최된 5G 심포지엄에서 5G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진화 의제(agenda)를 발표함
 - 5G는 기존 모바일 서비스에서부터 IoT와 중요 통신(critical communications)까지 확대하여 비용 효율적인 지원 최대화 및 더 빠른 데이터 속도의 콘텐츠 전달을 지원함
- ATIS의 역할은, 5G를 통해 최대 용량과 성능을 자랑하는 미래 네트워크를 알리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
 - 특히, ATIS는 북미 시장분석을 시작했고 5G 및 4G LTE 관련, 일련의 네트워크 진화를 정의하는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있음
 - ATIS 및 회원들은 3GPP¹⁾의 북미조직 파트너로서, 3GPP 활동에 북미 요구사항을 운용하기 위해 최적화된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, 4G 네트워크가 5G로 진화한 방법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 될 예정
- ATIS는 서비스 제공자가 더 나은 사업적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, 현재 네트워크 운영방식의 획기적 혁신 부분을 평가할 예정. 본 프로그램은 향후 5G가 공통 프레임워크 상에서 모든 서비스의 집합점이 되도록 할 예정
 - ATIS는 5G가 규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예정임

1) 3GPP: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. 3세대 이동 통신(3G) 비동기식 이동통신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단체. 1998년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(ETSI)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ARIB/TTC, 중국의 CCSA, 북미의 ATIS, 우리나라의 TTA 등이 참여하여 설립되었고, 산하에는 4개의 기술 규격 그룹과 분야별 워킹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. [출처: TTA용어사전]

- 북미의 중요 통신에 있어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요구사항으로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응급 서비스 등이 있음. ATIS의 응급 서비스 작업은 공공 안전에 관한 글로벌 요구사항의 발전을 이끈바 있음

■ ATIS는 5G 리더십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5G 심포지엄을 개최했음

- 5G 심포지엄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공급업체, 그리고 정부 및 학계 대표가 모여 5G 로드맵에 관하여 논의함

※ 연설자들의 프레젠테이션 http://www.atis.org/5G/presentations.asp?utm_source=ATIS+PR%3A+6.9+-ATIS+and+5G&utm_campaign=ATIS+-+Leadership&utm_medium=email 에서 볼 수 있음

기타 소식

ITU, 글로벌 ICT 규제회의 개최

- ▶ 출처 : http://www.itu.int/net/pressoffice/press_releases/2015/23.aspx#.VYEqUJUw99B (2015.06.11.)
- 6월 둘째 주, ITU와 가봉의 ARCEP(Autorité de Régulations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, 전자통신 규제기관)는 공동으로 ITU 글로벌 규제 심포지엄(GSR-15, Global Symposium for Regulators)을 주최함
- 이번 행사에는 60여개 국가의 ICT 규제기관 및 선도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400여 명의 고위 국제 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하여, 개발도상국 및 신흥 시장을 일으킬 수 있는 디지털 통합에 대한 가속화 전략에 대해 논의함